

삼악학교 터와 여준 선생

처인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릉리 능골 390-1



삼악학교는 여준 선생이 오태선, 오용근과 함께 1908년 죽릉리 능촌에 설립한 학교이다. 교사(校舍)는 마을의 유지였던 오향선이 기부한 집을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삼악학교의 명칭은 학교 주위를 감싸고 있는 구봉산, 문수산, 쌍령산에서 유래되었다. 삼악학교에서는 민족위식을 고쳐치키는 교육을 시행하여 오광선과 같은 독립운동을 배출하였다. 이후 오산학교에서 민족교육을 받은 김도태·김공집 등이 교사로 부임하여 교육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권피탈 후 일제의 압박이 심해지자 결국 폐교되었다.

여준은 원삼면 죽릉리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이 여조현(呂祖鉉)이고 호는 시당(是堂)이다. 어려서 한학을 공부하다가 서울로 올라가 이상설·이회영·이시영 등과 사귀며 함께 신학문을 공부하였다. 을사늑약 후인 1906년 이상설·이동녕 등과 함께 간도 용정으로 가서 서전서숙을 세워 민족교육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여준은 1907년 귀국하여 신민회에서 활동하는 한편, 오산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였는데 이와 함께 용인에 삼악학교를 세웠다. 국권이 피탈되자 서간도 삼원보로 망

五山學交

〈여준선생이 쓴 '오산학교' 현판〉

명하여 경학사 부민단에 참여하였다. 그 후 유하연 합니하에 헤워진 신흥무관학교에서 교장을 지내며 민족교육과 독립군 양성에 힘썼다. 1919년에는 길림에서 39명의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이어 서로군정서의 부독판과 임시정부 간서총판부 총판에 선임되기도 하였다.

1922년에는 독립군 양성을 위해 검성중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을 맡았으며 만주사변 외증인 1932년 퇴각하는 중국군에 의해 희생되었다. 1968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지만 증서는 국내에 후손이 없어 현재 서울 오산중·고등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다. 여준의 위패는 국립현충원 내 무후선열 제단에 봉안되어있다. 2012년 7월 국가보훈처는 여준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여준 위패(국립현충원 무후선열 제단)〉

약도



참고문헌

- 김태근, 「여준(1862~1932)의 민족운동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 용인문화원 용인항토문화연구소 편, 『원삼면지』, 2005.

찾아가는 길

- 대중교통: 용인시외버스터미널 및 원삼에서 원삼 청룡말 방면 버스(11번) 이용 능골 하차 구봉산쪽으로 500m 이동
- 자가용: 원삼면사무소에서 죽릉리 방면 3.5km 이동 능골에서 왼쪽 구봉산 쪽으로 300m 이동

주변 볼거리

- 와우정사: 용인시 처인구 해곡동 산43 ☎ 031-332-2472
- 우리랜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시암리 산74 일원 ☎ 031-324-4021

순국열사 이한응 열사 묘소

처인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산 70-1



이한응(李漢應, 1874~1905) 열사는 용인시 이동면 화산리에서 태어났으며 1905년 영국주재 공사 서리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을사늑약 체결을 막아보려 애쓰다가 체결 6개월 전인 그해 5월에 자결하였다. 선생의 묘소는 이동면 덕성리 금현에 있다.

이한응의 본관은 전의이며 호는 국은(菊隱)이다. 고종 11년(1874)에 태어나 5세부터 한문을 공부하기 시작하였으며 16세에 관립 영어학교에서 공부하고 21세에는 과거에 응시하여 성균관 진사에 합격하였다. 23세에 한성부 주사를 시작으로 관직에 나가 25세에 관립영어학교의 교관을 지냈다. 1901년 주차



〈이한응 열사 기념비(서울장충단공원)〉



〈이한응 열사〉

영의양국공관(駐劄英義兩國公館) 3등참서관에 임명되어 공사 민영돈과 함께 영국의 수도 런던으로 부임하였다.

광무 8년(1904년)에는 주영공사 민영돈이 귀국하자 공사 서리로서 복잡하고도 중요한 대영외교의 모든 책임을 혼자 맡게 되었다.

그는 영국정부에 한반도 중립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영일동맹의 부당성을 들어 항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한 몸을 바치겠다고 마음먹고 유서와 함께 큰형과 부인 진주(晋州) 강씨에게 보내는 유언장을 남겨 놓고 1905년 5월 12일 독약을 마시고 자결하였다.

고종의 특별지시와 당시 런던주재 한국 총영사 모간의 노력으로 그 해 7월 배편으로 고국에 귀환한 유해는 국민들의 애도 속에 고향에서 가까운 이동면 덕성리 금현(金峴) 선산에 모셔졌다.

당시 조정에서는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 내부협판(內部協辦)의 벼슬을 내리고 장충단(漿忠壇)에 배향(配享)하였다.

1962년 정부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으며, 1964년 장충단 공원에 그의 순국기념비가 세워졌다.

약도



참고문헌

- 송재용, 「구한말 최초의 순국열사(殉國烈士) 이한응(李漢應)」 『용인항토문화연구』 6집, 2005.
- 용인문화원 용인항토문화연구소 편, 『이동면지』, 2007.

찾아가는 길

- 대중교통 : 용인시외버스터미널에서 송전방면 버스이용 덕성리 금현 하차 300m 이동
- 자가용 : 이동면 덕성리 금현에서 좌회전하여 100m 이동 후 표지판에서 다시 200m 이동

주변 볼거리

- 처인성지 : 처인구 남서면 아곡리 산43 ☎ 031-333-2672
- 신세계 상업사박물관 : 처인구 남서면 청리 256-1 ☎ 031-339-1234

의병활동지 용덕사(굴암사)

처인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산57



용덕사(龍德寺)는 절 뒤에 큰 굴이 있어 굴암사 또는 굴암절로도 불리며 9세기인 신라 문성왕때 염거선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용덕사는 구한말 용인군과 양지군의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용인지역 항일 의병투쟁의 중요 근거지로 활용되었다. 농민 출신 의병장인 이인응은 1905년 양성군 삭령리에서 양지군 교곡(橋谷)으로, 다시 용인 굴암(窟岩)과 요산동(蓼山洞) 등지를 다니며 세력을 확대하고 군량을 확보하였다.

정주원은 1907년 8월에 자진하여 의병에 투신하여 용인 굴암에 있던 30여 명의 동지를 이끌고 양지·양성을 중심으로 의병 모집에 힘써 동지 150여명을 규합하여 활동하였다. 임옥여는 농상공부 주사를 지내다 의병에 투신하여 이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정주원 부대와 합류하였다. 임옥여 부대는 70여명의 의병을 모집하여 굴암에서 일본군과 교전을 벌였지만 무기의 열세로 수명의 사망자를 내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일본군은 이 일대의 활발한 의병활동을 토벌하고자 1907년 9월 용산수비대를 파견하여 백암지역의 의병 약 1백 명을 토벌하고 이곳 굴암을 근거로 활동하는 의병 200여명을 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의병은 15명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고 주변 산속으로 도피해야만 했다.

1919년에는 당시 굴암사 주지 원공은 고종의 승하 소식에 서울에 들렀다가 탑골공원에서 만세시위를 목격한 후 독립선언서를 접하고 3월 23일경 용인에 돌아와 굴암사 승려와 더불어 주변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다가 체포되었다고 전한다.

이들의 의혜 영향을 받은 장춘과 적동의 청년들은 고개 넘어 원삼면 학일리와 고초골의 만세시위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약도



참고문헌

- 이인영 『내고장 용인 독립운동사』, 용인군, 1996.
- 용인문화원 용인항토문화연구소 편, 『이동면지』, 2007.

찾아가는 길

- 대중교통 : 용인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동면 묵리 장춘 방면 버스이용 용덕사 입구 하차 후 도보 500m
- 자가용 : 처인구 용인시내에서 송진방면으로 직진하여 천리에서 묵리방면으로 좌회전한 후 4km 이동하여 묵리 용덕사 입구 주차장

주변 볼거리

- 처인성지 :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산43 ☎ 031-333-2672
- 신세계 상업사박물관 : 처인구 남사면 창리 256-1 ☎ 031-339-1234

노작 홍사용 시인 생가 터

기흥·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151번지



「나는 왕이로소이다」의 시인 노작(露雀) 홍사용(洪思容, 1900~1947)의 생가는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151번지이다. 노작은 1900년 대한제국 통정대부 육군헌병 부위로 있던 아버지 남양(南陽) 홍씨 철유(哲裕)와 어머니 한산(韓山) 이씨 한직(韓植)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노작은 1916년(17세) 휘문의숙에 입학하여 수학 중 1918년(19세) 정지현(정백), 박종화(율탄)와 함께 유인물 「피는 꽃」을 펴내면서 문필활동을 시작하였다. 휘문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석방 이후 낙향한 노작은 시를 통하여 민족의식을 형상화하기 시작했다. 노작의 문학은 나도향·현진건·이상화 등과 함께 창간한 동인지 『백조(白潮)』를 통해 개화하였다. 노작은 『백조』 발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재종형 홍사중을 설득하여 문화시를 설립하고, 사상 잡지 『흑조(黑潮)』와 함께 『백조』를 발간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흑조』는 발간하지 못하고 『백조』만 창간하게 되었다.

『백조』의 문학적 경향은 '병적 낭만주의'라는 문학사의 명명과 같이 3·1운동의



(홍사용 시인)

실패로 인한 비극적 세계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게재된 작품들은 대부분 현실에서의 도피, 꿈과 죽음의 세계에 대한 경사,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백조』가 궁극적으로 열망하고 있는 것은 변혁이었다. 창간호 후기인 「육호잡기」(1922.1)에서는 현재의 빛이 낡고 퇴색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의 부르짖음이 절실함을 밝히고 있다.

노작은 『백조』 3호(1923.9)에 발표한 「나는 왕이로소이다」에서 이 세상이 설움의 땅이고 그 세상의 왕은 눈물의 왕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일제치하의 암담한 현실을 사는 지식인의 비애를 형상화하였다. 노작은 일제 말기에도 창씨개명을 하지 않을 정도로 투철한 민족의식을 견지했던 시인이었다. 그는 민요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전통 율조와 민요시로 민족정서의 명맥을 잇고자 했다. 또한 그는 시인으로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문단활동을 하였는데 1923년에는 토월회에 가입해 문예부장직을 맡았으며 1927년 극단 산유화회를 결성해 희곡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해방이 되자 노작은 근국청년단(權國靑年團)을 조직하여 건국운동에 참여하였다. 또 환국한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반탁·임정 봉대운동에 앞장서려 했으나, 그 뜻을 펴지 못하고 폐질환으로 1947년 1월 17일 생을 마감하였다.

현재 노작이 태어났던 생가의 모습은 온전히 남아 있지 않다.

노작의 생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김혁 장군의 생가터가 있는데, 선친인 홍철유와 김혁 장군이 무관학교 1기생이었다는 인연이 있다.



참고문헌

- 김혁동 편저, 『홍사용 전집』, 새문사, 1985.
- 박숙현 「노작 홍사용 탄생 100주년 기념, 생가를 찾아서」 《용인문학》제4호, 2000.

찾아가는 길

- 자가용 : 용인 신갈에서 오산간 도로 → 화성 동탄면 이전 삼성전자 방향 우회전 → 농서 1리 노인정 옆 (용수굴)

주변 볼거리

- 삼곡서원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203-2 ☎ 031-262-0981

범정 장형 선생 묘소

기흥·수지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 단국대학교 교정내



독립 유공자이자 교육자인 범정(梵亭) 장형(張炯, 1889~1964) 선생의 묘역은 수지구 죽전동 단국대학교 교정 안에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던 묘소가 단국대학교의 캠퍼스 이전과 함께 이곳으로 이장된 것이다.

1889년 1월 18일 평안북도 용천에서 인동(仁同) 장씨 창익(昌翼)의 차남으로 출생한 범정은 1909년 보성전문학교에 입학하여 근대학문을 접하였다. 학창시절 그는 도산 안창호 선생과 의암 손병희 선생의 애국사상에 강한 영향을 받았으며, 1911년 2월 학교를 자퇴하고 중국으로 망명했다. 이후 범정은 해방직전까지 만주에서 '남선북마 독립군'에 투신하여 항일 독립전선의 전면에서 적극 활동하였다. 그는 군자금 조달의 중책을 맡았는데 중국 동북일대는 물론 압록강과 두만강을 수시로 넘나들면서 비밀공작과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이때 그는 한의침구술을 고습 받아 침술사로 위장하여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범정의 독립군 군자금 모금에 협조한 애국지사는 강원도 철원의 고중권, 충남 서산의 이광, 전북 김제의 장현식, 경기도 화성의 박기홍 선생 등이 있다. 특히 그와의

협동지를 맺은 박기홍 선생은 전재산을 애국동량을 키우는 육영사업에 사용해 달라는 유언을 의탁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렇게 모금한 군자금을 이갑성·오광선·이규갑 등의 독립투사들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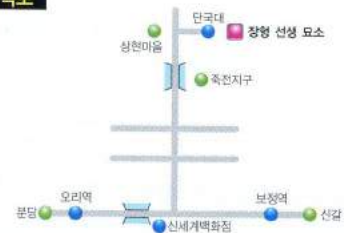
해방 후 한국한 범정은 1946년 7월 국민동지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으로 건국사업에 뛰어들었고 10월에는 김구 주석과 함께 건국실천양성소를 조직하였다. 하지만 해방직후 혼탁한 정국을 통찰한 범정은 조국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다고 판단하였다. 곧 그는 고 박기홍 선생의 미망인인 조희재 여사에게 부군의 유언을 전달하면서 상속재산을 민립대학 설립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위임기탁 받았다. 이러한 범정의 노력으로 1947년 11월 해방 후 최초의 사립대학인 단국대학 설립인가를 받았고, 언론인이며 독립운동가인 장도빈 선생을 초대학장으로 초빙하여 12월 3일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김구 선생과 장형 선생〉

학교명인 '단국(檀國)'이라는 이름은 '단군(檀君)'과 '애국(愛國)'에서 딴 것으로, 건국이념인 단군 정신으로 교육하여 반드시 남북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범정의 신념을 담고 있다. 범정은 1963년 3월 1일 건국공로 훈장을 수여 받았다. 범정의 묘소는 단국대학교 내 석주선 박물관 뒷편 언덕에 위치해 있다.

약도



참고문헌

- 박무성 편, 『범정인행록』, 범정해당기념사업회, 1982.
- 박영석, 『일제하 독립운동사 연구-만주 노령지역을 중심으로』, 일조각, 1982.
- 황원영, 『범정의 교육철학』,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7.

찾아가는 길

- 판교C ↔ 단국대 죽전캠퍼스(구간 거리: 11km) : 판교C 출차후 분당방향 직진 - 매송사거리에서 우회전 -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진입 - '수원·용인' 방향 우회전 - 죽전사거리 고가도로 진입 - 죽전교차로에서 좌회전 - 단국대 죽전캠퍼스

매국노 송병준의 별저터

처인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2리 239번지(현 온누리세계선교센터 자리)



〈별저 정문의 옛모습〉

용인시 양지면 금박산 자락에 자리한 추계리(秋溪里)에는 친일파의 거두 송병준의 별저가 있다. 송병준은 1889년 5월부터 1891년 4월까지 양지현의 현감을 지낸 이후 1894년 일본으로 도피하였다. 그 후 1905년 통역관으로 귀국한 송병준은 친일단체



〈영화지의 옛모습〉

인 일진회를 만든 후 갖은 매국행각을 벌이다가 이 곳을 다시 찾아 대저택을 지었다. 목재는 광주군 도척면 방도리 되재마을에 있는 큰 한옥을 뜯어 우마로 옮겼다 한다. 조선총독부 총독이나 이완용 등 친일파들도 이 곳을 자주 찾아와 공사를 지원



〈송병준 선정비〉

하였다고 전해진다. 그의 집은 모두 99칸에 이르렀고, 입구에 영화지(映華池)라는 연못이 있는 큰 정원을 만들었는데, 오늘날에도 터가 남아 있어 당시의 위용을 짐작할 수 있다. 송병준이 일진회 고문의 직함을 갖고 이 곳에 머물 당시, 일진회원 4백여 명과 일본 낭인 수십명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다. 이들은 신작로 개설과 식료품 운반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때론 저항하는 주민이나 항일지사를 잡아다 고문을 자행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별저 부근에서는 일진회원들과 의병과의 교전이 자주 일어나 다수가 사상하였다. 일진회 회원 7~800여명이 의병활동에 위협을 느껴 이 곳으로 피신하기도 했으며, 그 후 50명의 일본군이 상주하였다. 송병준은 이곳에서 말년을 보냈고, 죽은 후에도 이 곳 추계리 뒷산에 묻혔으나, 후손들에 의해 파묘되어 화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그가 양지현감으로 재직하다가 장위영 영관으로 자리를 옮긴 시기(1891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선정비'와 아들 송중헌(宋鍾憲, ?~1949)이 일제로부터 백작 작위를 받으며 만든 '기념비'가 양지면 양지초등학교 운동장 밑에서 발견된 바 있다.

약도



참고문헌

- 이이화, 『이야기 인물 한국사』, 한길사, 1993.
- 이상표, 『용인자연마을기행』, 용인시민신문사, 2005.
- 김명섭, 『한말 용인 항일의병의 활동과 그 특징』, 『용인항토문화연구』 제7집, 2006.

찾아가는 길

- 대중교통 : 용인터미널에서 10-3 버스 이용, 양지 추계2리 정류장에 내려 기독교순교자기념관 방향으로 걸어서 10분
- 자기용 : 양지 IC 사거리 → 이천방면 42번 국도 3km → 추계리 동일주유소 지나 선일자동낭장 앞에서 좌회전 기독교순교자기념관 방면 5분 → 온누리세계선교센터 앞 주차

주변 볼거리

- 세종옛돌박물관 : 양지면 양지리 산 6-1번지 ☎ 031-321-7001
- 기독교순교자기념관 : 양지면 추계리 산 84-1 ☎ 031-336-2825~6

의열단원 남정각 지사 유허비

처인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 파담(비아수-솔미길)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 파담은 약천 남구만 선생이 비파와 시를 벗 삼아 말년을 보낸 예향(藝鄕)이다. 남구만 선생이 “동창이 밝았느냐”라는 시조를 읊으며 비파를 탈 때 선학들이 날아들었다는 전설도 전해 오는데, 이 곳이 의열단 단원으로서 만주와 국내에서 치열하게 활동하였던 남정각 지사가 태어난 곳이다.

남구만 선생의 6대손인 남정각(南廷珪, 1897~1967)은 아명이 영득(寧得·英得)이었다.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선생은 수원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안성·용인 지역에 만세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독립신문』을 배포하는 등 항일 선전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세운동이 실패하자 중국으로 망명하여 1922년 6월 최용덕과 이종암의 소개로 의열단에 가입하였다. 당시 의열단은 서울 폭탄투척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원활하게 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열단 단장 김원봉과 만난 남정각은 자신이 직접 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남정각은 폭파대상을 조선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 및 일본인 전기회사 등으로 정하고 1923년 2월



〈남정각 지사〉

14일 서울에 잠입하였다.

서울 을지로의 한 여관에서 거사 기회를 엿보던 남정각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폭탄을 들여오지 못하자, 동지인 권동산·윤병하·유시태 등과 만나 직접 군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유시태와 함께 1923년 2월경 군자금을 모금하던 중, 그는 친일파의 밀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남정각은 징역 8년형을 언도받았는데, 옥 중에서도 독립정신을 양양하는 투쟁을 계속하다가 1928년 출감하였다. 1929년 다시 중국 천진으로 망명하여 지하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천진교민회’를 조직하였다.

해방 직후 남정각은 귀국하는 동포들의 여비를 조달하기 위해 일본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동포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힘썼다. 귀국 후에는 고려동지회에 가입하여 건국사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 후 1967년 1월 29일 병사하였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 받았으며, 현재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남정각의 독립정신과 애국 활동을 기리기 위해 1990년 5월 용인향토사학회와 후손들이 고향인 갈담리 파담에 ‘남정각 선생 유허비’를 건립하였다.

약도



참고문헌

- 박태원, 『악산과 의열단』, 백양당, 1947.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1』, 1976.
- 용인문화원 용인향토문화연구소 편, 『모현면지』, 2003.

찾아기는 길

- 대중교통 : 강남역방향 : 1005번, 1500-2번 버스 → 모현면 갈담리 파담 하차, 남구만 Byeom 방향으로 500m 이동

주변 볼거리

- 남구만 선생 묘 : 용인시 모현면 초부리 산 1-5 ☎ 031-334-6293
- 마기미술관 : 용인시 모현면 동림리 263번지 ☎ 031-334-0365
- 호림미술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에버랜드 단지내) ☎ 031-320-1842
- 삼성교통박물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 031-320-9900

조선의용대원 정철수의 묘소

처인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는 포은 정몽주 선생의 선영이 있는 곳으로 영일 정씨 후손들이 대대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가는 마을이다. 이 곳에는 포은의 24대 직계종손이면서 항일투사인 정철수(鄭哲洙, 1921~1989)의 묘소가 있다.

정철수는 능원리에서 태어나 명문가의 종손으로 주위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자라나서 보성전문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일제의 중국 침략과 동남아 및 미국 침공으로 인해 전장이 확대되고 있던 1943년경, 그는 전시동원 체제에 의해 학도병에 징집되어야 했다. 정철수가 배속된 부대는 중국 산둥성 제남(濟南)의 관동군부대인데, 이곳에서 그는 일본군의 야만성과 민족차별을 겪어야 했다. 기회를 엿보던 정철수는 동료 2명과 함께 야밤을 틈타 탈출에 성공하였고, 항일투쟁의 근거지인 태항산을 향해 약 70여리를 걸었다.

조선의용대와 중국 팔로군이 주둔하고 있는 태항산에서 그는 '조·중 연합군'의 떳떳한 항일투사로, 그리고 조선의용대의 전사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1944년 9월 정철수는 태항산맥에 주둔하며 항일투사를 길러내던 화북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

교에서 간부로 발탁되었다. 그는 일본군 내의 조선인을 투항시키기 위한 항일 선전물의 발간과 선전, 공작대의 활동 등에 주력하며 고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도 그는 곧장 귀국하지 못했다. 동북 3성 전체를 관장하는 길림성 동부군구의 정치부주임으로서 총사령과 참모장에 이은 서열 3위의 고위직을 맡았기 때문이다. 1947년 정철수는 조선동포들의 민족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군에서 퇴직한 후, 길림시 조선중학교를 설립해 초대 교장으로 취임한다.

이후 중국공산당의 권력투쟁과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 차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원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다행히 1983년 KBS의 이산가족찾기 방송에서 어머니가 그를 찾았다는 소식을 접하여 생사를 알릴 수 있었고, 이후 여러 친지와 종중의 도움으로 어머니와 상봉하게 되었다. 1984년 가을 1차 귀국에 이어 이듬해 봄 정철수는 영구 귀국하여 고향인 용인에서 지냈으며, 3년 후인 1989년 이곳에서 잠들었다. 정철수는 2011년 8월 15일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정철수〉



〈정철수 저서 나의 청춘〉

약도



● 참고문헌

- 정철수 저, 『나의 청춘』,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93.
- 우상표, 『고철』로 알려진 항일투사 정포은의 24대 직계종손』 《용인시민신문》 2002년 11월 28일자.
- 迎日鄭氏團蔭公派宗約院, 『총보(宗報)』, 2007 가을 제 10호.

● 찾아가는 길

- 자기용 : 용인 외국어대 사거리에서 행정타운/용인IC/에버랜드 방면으로 우회전 → 모현 면사무소방면으로 우측방향 →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 주변 볼거리

- 정몽주의 묘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산3 ☎ 031-333-8403
- 한국등산박물관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258-9 ☎ 031-334-0797